

## 소식

###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선고...김상호 총장 해임 확정 법인 이사회, 박상규 교수(생명환경학부) 총장 직무대행 임명 노조 '행정 공백 방지 및 퇴행 없이 적법한 총장선출 서둘러야'

지난달 20일 대구지법은 김상호 前총장이 제기한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상호 前총장은 지난해 3월 29일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회로부터 총장직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6월 4일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아 총장직에 복귀하였다. 9월 29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번 본안 소송에서 총장 해임이 확정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유에는 법인의 징계 및 해임 사유를 포함한 교원소청위원회의 기각 결정 내용이 대체로 원용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제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총장 공석이 재발생됐고, 당일 이사회는 박상규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은 해임 확정 다음날 게시한 입장문에서 “구성원이 공동체의 재건과 정상적 운영이 시급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관행적 폐습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심하여 실천할 것”은 물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본 노조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직원위원을 지난해에 추천한 바 있으며, 최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교수회와 법인과의 협의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 정보

###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22. 2. 11.(기준)

조합원(A)	휴직조합원(B)	현재 근무(A-B)	비고(전월 대비)
194명	6명	188명	복직 1명, 휴직 2명

### 2월 조합원 祝 생일자\_무순/양력 기준

이동주	권난경	김은경	한순남	김영준
김석범	박해진	김병래	김언미	심선미
김동환	박정용	이상일	정수리치	석경희
이승철	이철환	배성수	김종구	장성대
김영숙	차은희	손대영	이은경	남윤순
이용욱	김경자	김옥진	-	-

## 2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2. 7.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위원장
2. 8.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2. 9.	대학노련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2. 11.	방학 중 단축근무 종료	노동조합
2. 13.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일	노동조합
2. 22.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2. 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
예정	단체교섭	위원

## 전월 활동 경과

일정	내용	비고
1. 4.	직원 인사위원회: 정기포상 등	위원장 등
1. 5.	한국노총 경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1. 5.	신년 상견례: 교수회 의장단	위원장, 사무국장
1. 11.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 11.	신년 상견례 겸 면담: 이사장	위원장
1. 13.	대학 시설위원회	사무국장
1. 18.	대학 기획위원회	기획부장
1. 18.	한국노총 경산지부 운영위원회	위원장
1. 21.	입장문: 총장해임 관련 법원 선고(1심) 결과	노동조합
1. 25.	한국노총 경산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
1. 26.	정례회의	집행위원회
1. 27.	직원 인사위원회: 전보, 포상 등	위원장 등
1. 27.	현안 협의: 교수회 의장단	위원장 등
1. 28.	설 명절 인사문 게시	노동조합
2. 4.	노동조합 회보 18-6호 발간: 포털 게시	홍보부

## 게시판

###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시거나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습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이철환), 부위원장(이승희), 여성부장(김민정)

###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제언, 노조 및 대학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의견을 주시면 본 회보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 홍보부장(최준혁): 053\_850\_5155